



# KIA, '투수왕국' 명예 되찾는다



### 윤석민·신용운·이대진·한기주 등 쾌투 팀 자책점 2.89 1위...연령도 가장 젊어

KIA타이거즈가 '젊은 마운드'를 앞세워 선동열(현 삼성감독) 이후 퇴색했던 '투수 왕국'의 명성을 되찾아 가고 있다.

KIA는 25일 현재 팀 평균자책점 2.89로 8개 구단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롯데가 3.06으로 뒤를 쫓고 있다.

KIA는 특히 외국인을 에이스로 내세운 다른 팀들과 달리 '토종 에이스'가 굳건히 1~2선발을 지키고 있다. KIA의 에이스는 윤석민(21)이다. '원종 토종 에이스' 김진우가 2군으로 강등되는 바람에 어쩔결에 1선발로 낙점되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 몫을 푹푹 해내고 있다.

해태 시절부터 투수 왕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KIA 마운드로서 윤석민의 깜짝 등장이 반갑기만 하다.

윤석민은 올 시즌 4경기에서 27.1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1.32로 호투하고 있다. 다만 팀 타선의 부

진과 수비진의 실책으로 개인 성적은 1승 3패에 머무르고 있다.

'미들맨' 신용운은 9경기에 출전, 16.1이닝동안 평균자책점 0.55로 2승을 챙기며 든든한 허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여기에 2년차 마무리 한기주도 8경기 10이닝동안 2패 5세이브(평균자책점 3.60)로 호투를 선보이고 있다.

국보급 투수 선동열(현 삼성 감독)을 앞세운 KIA는 전신 해태 시절이던 1993년 '10승 투수 6명'시대를 처음으로 개척하면서 '최강 마운드'의 구단이란 명성을 얻었다.

2007 시즌에도 윤석민, 이대진, 이서튼, 전병두, 양현종 등 5명의 선발과 최고시속 157km의 광속구를 던지는 마무리 한기주가 버티는 KIA 마운드는 가장 큰 장점인 '젊음'을 내세워 제 2의 투수 전성기를 맞

고 있다.

오랜 재활을 거쳐 화려하게 부활한 이대진(33)이 1군 투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을 정도로 KIA 마운드는 무척 젊다. 1군 엔트리에 등록돼 있는 투수 12명 가운데 이대진(33)과 용병 이서튼(31)을 제외한 10명의 평균나이는 22.2세로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어린이다.

'젊음이 던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윤석민, 전병두, 한기주는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볼을 뿌리고 있다. 이는 '지키는 야구'의 선두 주자인 삼성을 비롯한 7개 구단이 모두 부러워 하는 KIA만의 강점이다.

윤석민, 한기주, 전병두 등은 지난 시즌의 경험까지 더해져 관록있는 빠른 볼을 던지고 있고, 이대진, 양현종 등 칼날 제구력을 앞세운 투수들이 가세해 마운드의 짜임새가 더욱 좋아졌다.

서정환 KIA 감독은 "지난해 1~2선발이던 그레 이싱어가 일본으로 떠나고, 김진우는 2군으로 내려가면서 팀 마운드가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젊은 투수들이 예상외로 잘해줘 팀 전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흐뭇해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고교 댄스동아리 경연대회

### KIA 5~9월 홈경기때 개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5~9월 광주구장 홈 경기에서 고교 댄스동아리 경연대회를 연다.

올 경기 3연전 가운데 2차전의 클리닉타임 때 두 팀씩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해 최종 4개팀이 결승전을 갖는다.

우승팀은 장학금 150만원을 받고 2, 3위팀에게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광주, 전남·북 지역에 있는 고교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신청은 구단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한편 KIA는 28일 오후 5시 광주구장에서 열릴 한화와의 경기를 '목포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목포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1천여 명을 초청해 단체응원 및 대학교 홍보 동영상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박용성 IOC위원

### 13개월만에 복권



기갑비에 연루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용성(67·사진) IOC 위원이 13개월만에 복권됐다.

IOC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해 3월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됐던 박용성 위원에 대해 재심판의 결과 복권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용성 IOC위원은 모든 권리를 회복해 이젠 IOC 위원과 함께 한국을 스포츠외교관으로 국제무대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1995년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에 취임한 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IOC 위원으로 선임됐던 그는 각종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나 2005년 불거진 두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지난 해 3월 IOC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됐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제명까지도 거론됐지만 IOC는 지난 해 9월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박용성 위원의 역할을 감안해 최종 징계를 6개월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박용성 위원이 복권됨에 따라 강원도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힘을 받게 됐다.

연남뉴스



아슬아슬... 파도터널을 뚫고

25일 타히티섬의 테아후퍼에서 열린 프로 서핑협회 월드챔피언십투어 빌라봉 프로대회 3라운드에 출전한 호주의 안토니 울쉬가 환상적인 서핑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김달은·정다래 수영 4관왕 '듀엣'

(여수시)

## 전남도민체전 고흥군 궁도 단체·개인전 휩쓸어

제46회 전남도민체전 이틀째인 26일 김달은(여수시)과 정다래(여수시)가 수영에서 금빛물살을 가르며 각각 4관왕에 올라 종합 우승을 노리는 여수시에 힘을 보탤다.

김달은은 강진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자부 접영 50m와 계영 2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25일 자유형 50m, 혼계영 200m 우승에 이어 4관왕에 올랐다.

정다래도 수영 여자부 평영 100m와 계영 200m에서 금을 추가해 25일 평영50m, 혼계영 200m에 이어 역시 4관왕에 등극했다.

김성관(광양시)은 남자부 4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해 전날 800m 우승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김고은(여수)도 수영에서 3

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준화는 육상 남자부 100m와 멀리뛰기에서 각각 10초90, 7m21cm를 뛰어 2관왕에 올랐으며 수영에서 한규철(보성), 조성모(신안군), 박선관(곡성군), 김재호(목포시), 구본호(목포시), 이지은(광양시), 서매화(광양시), 김지연(여수시)등이 2관왕에 합류했다.

성화대 체육관에서 계속된 태권도에서 플라이급 전호철(영광군), 페더급 김재식(진도군), 웰터급 김민규(장흥군), 헤비급 김경훈(신안군)이 각각 우승했다.

궁도에서는 고흥군이 단체전과 개인전을 싹쓸이 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경기가 종료된 유도에서 여수시가 영암군을 4-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검도에서 무안군이 영암군을 4-1로 제압하고 1위에 올랐다. 역시 경기가 종료된 씨름은 여수시가 영암군을 4-3으로 꺾고 우승했다.

대회 이틀째 경기결과는 여수시와 치열한 종합우승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광양시가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등에서 선전을 펼치며 여수시를 긴장시켰다.

광양시는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축구에서 영암군을 2-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으며 남자 테니스에서 강진군을 2-1로 꺾고 역시 4강에 올랐다. 또 광양시는 남자 정구에서 장성군과 무안군을 차례로 꺾고 4강에 진출했으며 남자배구와 탁구에서도 선전을 펼쳤다.

박진표기자 lion@kwangju.co.kr

## 이주은 2연더 선두

크라운CC여자오픈 2R

'비운의 스타' 이주은(30·보그너)이 한국 여자프로골프 데뷔 8년만에 생애 첫 우승 기회를 맞았다.

이주은은 26일 제주 조천읍 북촌리 크라운골프장(파72·6천300야드)에서 열린 엠스 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2언더파 142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이정화(30)가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1언더파 143타로 1타차 2위로 따라 붙어 최종 라운드 맞대결을 펼치게 된 것이 앞다.

이정화는 2001년 스포츠서울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거머쥐며 무명 탈출을 선언했으나 이후 6년 동안 하위권을 전전하는 장기 슬럼프를 겪고 있다.

이정화 역시 모처럼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박진표기자 lion@kwangju.co.kr

## '괴물투수' 탄생

### 제주관광고 김수완

### 노히트노런 대기록



제주관광고의 3학년 우완 정통파 투수 김수완(18·사진)이 고교야구에서 15년만에 노히트노런 대기록을 달성했다.

김수완은 26일 중구 동대문구장에서 벌어진 제41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에서 순천효천고를 맞아 9이닝 동안 27타자를 상대로 몸에 맞은 볼 1개만을 내줬을 뿐 안타와 볼넷 없이 효천고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고 대기록을 작성했다. 제주관광고의 4-0 승리.

위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공은 단 85개였다. 그는 삼진은 6개를 낚았고 최고구속은 141km를 찍었다.

### 대통령배 고교야구 1회전서

### 효천고에 사사구 1개만 허용

### 15년만에 고교대회선 14번째

대한야구협회에 따르면 이날 김수완의 노히트노런은 고교 대회에서 역대 14번째로 나온 기록이다.

최근에 노히트게임을 달성한 선수는 1992년 6월10일 청룡기 결승전에서 선린상고를 상대로 4-0 승리를 거둔 공주고의 우완 노장진이었다.

대통령배에서는 1986년 4월24일 부산고의 권영일이 8강전에서 역시 선린상고를 제물로 1-0 노히트노런을 이룬 이후 21년 만에 탄생했다.

경기 감독 출신인 김수완은 키는 182cm로 큰 편이나 몸무게는 63kg에 불과해 투수로서는 약간 마른 체형이다.

주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김현주(50)씨와 조정숙(46)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김해삼성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김해고 1학년 때인 2005년 프로야구 투수 출신으로 은사인 성낙수 감독을 따라 제주관광고로 전학했다.

2학년이던 지난해 본격적으로 전국 대회에 출전했고 5개 대회에서 1승2패로 성적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24.1이닝을 던지면서 단 2점만 내줘 평균자책점이 0.74에 그친 점은 호평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